희망고 13주년

HIMANGO 13th Anniversary Annual Book

HIMANGO

Contents

Chapter 1 **망고나무** 6

Chapter 2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초등학교** 14

Chapter 3 **엄마들을 위한 여성(미싱) 직업학교** 18

Chapter 4 **아빠들을 위한 남성(목공) 직업학교** 23

Chapter 5 **청소년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 유스센터** 30

Chapter 6 **청소년 축구팀** 34

Chapter 7 **현지 신문기사 및 감사문** 36

Chapter 8 **농업** 38

Chapter 9 **한센마을 관자** 41

History of HIMANGO

남수단 톤즈의 첫 망고묘목 100그루	2009
사단법인 희망의망고나무 정식 출범	2009
15,000그루 망고묘목을 심어주다.	2010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옷을 만들고 싶어요!” **여성 직업학교 : 미싱**	2012
톤즈의 유일한 ‘희망고유치원’	2012
톤즈 주민들이 부릅니다. 마마리! **남성 직업학교 : 목공**	2013
희망고 스트리트	2014
한센인마을, 관자(Kuna-ja)를 방문하다.	2015
톤즈의 미래 ‘희망고 유스센터’ **청소년 컴퓨터 교실**	2016
스스로 일어나는 톤즈의 작은 발걸음 **마을재건**	2017
첫 망고나무 열매! **농업의 시작**	2018
희망의 북소리 10년을 외치다. 희망고! **한센마을 복합교육센터 완공**	2019
톤즈 주민들은 ‘종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
현재 한센마을	2021

13주년 소감

망고 한 알이 생명처럼 소중한 열매를 맺은 지 10년하고도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2년 하다 곧 포기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보다 포기했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에 닿을 듯 닿을 듯 닿지 않는 곳, 아무리 손을 뻗어도 결국 놓칠 것 같은 곳,
뭔가 있을 듯해서 쫓아가보는 사막의 신기루 같은 곳이었을까요?

그런 톤즈에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시간이 저절로 흘러
이제는 보이고 잡히는 것들이 기적처럼 생겨나고 있네요.

그간 해왔던 일들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고 무엇 때문에 하려고 했는지 기억하려 합니다.
시작할 때의 마음, 생각 잊지 않으려 합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잿빛 광야 톤즈에서
여러분들 덕분에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고,
희망고는 무엇이든 시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희망고는 일회적인 도움에 그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일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톤즈의 엄마 아빠들에겐 망고 묘목을 심어 키우는 방법을, 재봉과 목공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이들에겐 유치원과 초등교육을 받도록 하고,
청소년들에겐 컴퓨터 교육을 통해 미래의 유능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벌써 767명이 되었네요.
작은 씨앗이 뿌리를 내려 큰 망고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게 희망고의 일입니다.

남수단은 계속되는 내전과 홍수로 국가가 기근 선포를 한 상태이며,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쳐 더욱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후원자님들 덕분에 아프리카의 기본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이제는 수박 호박 오이 가지 등 30여 종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희망의 망고나무 대표
이광희 올림

2009년부터 패션 디자이너 이광희와 함께 시작된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의 주민을 돕는
NGO '희망의 망고나무'(희망고).
10년 전 100그루 심었던 망고나무가
지금 4만 그루나 됐습니다.

Chapter 1

망고나무

남수단 톤즈의
첫 망고묘목 100그루

2009년 3월 첫 발을 내디었던 톤즈는 마른 땅과 아직 끝나지 않은 내전의 긴장감 마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톤즈 강물을 마신 주민들 800여명이 콜레라에 걸려 사망한 그 곳에 유일하게 눈에 들어오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망고나무 였습니다. 척박한 땅에 굶주린 아이들 사이에 탐스럽게 잘 자라는 망고나무는 그들의 유일한 먹거리이자 쉼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망고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슈퍼마켓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재산 가치이며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생명의 나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진 돈을 다 털어 망고묘목 100그루를 심었습니다.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100년동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기적과 같은 나무, 100년의 희망을 그 곳에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MANGO TREE
PLANTED BY
LEE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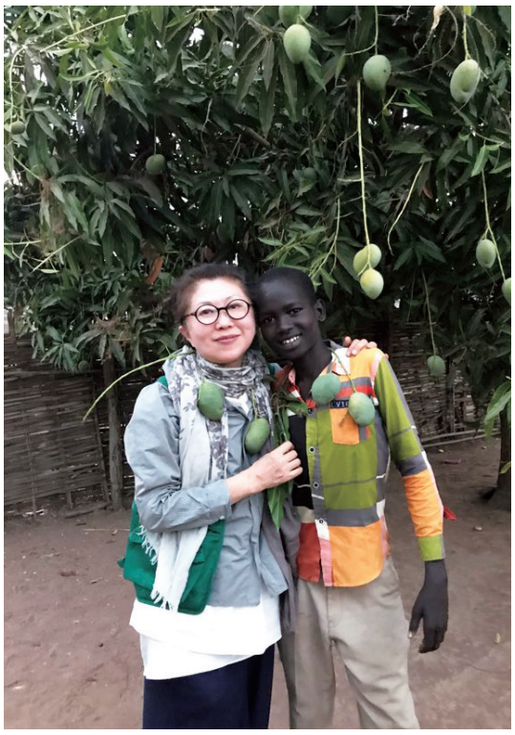
15,000그루
망고묘목을 심어주다.

한국에 돌아와 한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마치 꿈 꾸듯 망고나무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픈 주위분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모아진 후원금을 들고 두번째 남수단 톤즈를 방문 했을때에는 15,000그루의 망고묘목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내일을 꿈꾸지 못했던 사람들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망고묘목 줄서서 받는 주민들

내일을 꿈꾸지 못했던 사람들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망고나무 열매!
망고나무에 망고가 주렁주렁



망고나무가 어느덧 희망고 나이만큼 자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2009년부터 심었던 망고묘목들은 꾸준히 성장해 나무마다 초록색 망고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희망고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적게는 3천 그루의 망고묘목을, 많게는 15,000그루를 각 가정과 희망고 빌리지 내에 배분하고 정성껏 키워 왔었습니다. 때로는 기근과 때로는 물난리에 모진 환경들을 묵묵히 견디며 자라나 준 망고나무들이기에 아직 다익지도 않은 망고들이지만 초록색의 망고마저도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사단법인 희망의 망고 나무
정식 출범

GOVERNMENT OF SOUTHERN SUDAN
Ministry of Legal Affairs and Constitutional Development
The Registrar of Companies, Businesses,NGOs, Associations and Societies
Office of the Chief Registrar

Reg. No. 1,179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 Peter Gatkouth Kor, Chief Registrar of Companies, Businesses, NGOs, Associations and Societies hereby certify that HIMANGO PROJECT is this day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New (Southern) Sudan NGO's Act 2003.

Given under my hand at Juba, Southern Sudan this 24TH day of OCT 20 11

Signature

Chief Registrar
Ministry of Legal Affairs and Constitutional Development.

비전 Vision	희망고는 빈곤과 내전의 억압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정단한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미션 Mission	희망고는 빈곤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 사회적 · 경제적 자립을 도와 자존감을 키우고, 스스로 풍족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핵심가치 Values	• 늘 깨어 있어 준비를 갖추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용기를 갖는다. 그리고 모든일을 사랑으로 행한다. • 누구나 쉽게 찾아 도움을 줄 수 없는 어려운 곳, 그 곳을 찾아간다! • 철저한 현장 중심으로 현지의 문화와 방법으로 주민들의 이웃이 되어 시행한다.

세 번째 톤즈 방문 이후, 희망고는 남수단 정부로부터 약 1만평의 대지 무상 대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몇달 후 (2011년 10월) 남수단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최초 국제NGO 인가 남수단 남톤즈 카운티(Tonj South County)와 양해각서(MOU)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해 10월 24일, 이광희 대표는 사단법인 희망의망고나무로 정식 활동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더불어 세 번째 방문한 톤즈, 희망고는 아이들과 희망을 그리는 미술대회도 하고 엄마들과는 패션쇼를 하며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매년 꾸준히 망고묘목을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HIMANGO
Himango Village
HIMANGO VILLAGE, TONJ TOWN PAYAM, TONJ SOUTH COUNTY

Chapter 2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 초등학교

톤즈의 유일한 '희망고 유치원'

톤즈의 희망고빌리지는 아침마다 북적입니다. 엄마들을 위한 재봉교육이 한창이고, 함께 따라 온 아이들이 120명이나 됩니다. 톤즈의 유일한 유치원, 희망고 유치원 안에 아이들을 위한 3개 반이 조성되었습니다. 2년 이상교육을 받은 엄마, 아빠들 중 성실히 수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듬해 2015년에는 남수단톤즈 시장 공동서명이 있는 공식자격인증 졸업장을 수여하여 목공소와 수선소 일을 하게 되는 등 조금씩 자립을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북소리
10년을 외치다. 희망고!

톤즈 주민들과 현지 정부, 희망고가 협업하여 조금씩 현지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직접 망고농장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포부를 키워나가는 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투르고 투박하지만 그들의 힘으로 직접 생명들을 키워나가며 몇 년 뒤에는 그들이 스스로 자립 운영할 수 있을 망고농장을 기대합니다. 2019년 2월에 방문한 망고 농장은 온통 푸르른 망고 묘목들과 생명들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767명. 희망고 빌리지의 엄마, 아빠들을 기술을 연마하는 데에 열심히고 유치원 아이들로 시작한 희망고 유치원은 어느덧 초등학교 5학년 교실까지 있는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남수단에 처음 스쿨버스가 들어왔습니다

Chapter 3

엄마들을 위한 여성(미싱) 직업학교

톤즈의 한 엄마가 손을 들고 외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옷을 만들고 싶어요!"

망고열매는 처음 맺어지기까지 7년 이상이걸립니다. 첫열매의 결실을 기다리는 동안 희망고는 끊임없이 톤즈 주민들이 떠오릅니다. 잦은 내전으로 인해 모계사회로 구성된 톤즈는 여성들의 역할이 큽니다. 작년에 옷감을 가져가 바느질을 가르쳐줬을 때 눈빛이 반짝이며 열심을 다 해 옷을 짓던 엄마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엄마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엄마들을 가르치려니 아이들이 덩달아 어른거립니다. 아이들도 보육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희망고는 2011년에 증여받은 1만여평 대지에 톤즈 주민들의 교육과 자립을 위해 복합교육문화센터인 <희망고빌리지>를 준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의 '망고씨앗'을 심는 것 처럼, 엄마, 아빠, 아이들에게 '자립'의 씨앗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HIMANGO

희망고에서는 매년 남수단 출장을 가면 톤즈 주민들과 함께 많은 회의를 합니다.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방법을 찾아갑니다. 각종 마을회의, 여성들이주최가 되는 희망고 부녀회 등을 꾸려갑니다.

여성직업학교에서 엄마들은 재봉틀 사용을 배우기시작하며
희망고 유치원 아이들의 교복과 가방 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Chapter 4

아빠들을 위한 남성(목공) 직업학교

톤즈 주민들이 부릅니다.
마마리!

희망고 이사장인 디자이너 이광희는 이제 톤즈 주민들의 엄마입니다.가는곳마다 "마마리!"를외칩니다. <희망고빌리지>가 완공되어 희망고는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희망고빌리지 안에서 온 가족이함께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들을 위한 남성직업학교에서 조적 과목공 기술 수업을, 엄마들을 위한 여성직업학교에서는 재봉 기술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수단 톤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물'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만 마실 수 있으면, 많은 질병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고 빌리지의 남성직업학교의 학생들인 톤즈의 아빠들이 힘을 모아 '워터타워'를 만들었습니다!

건축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희망고빌리지 내에 화장실 안내벽도 만들고, 목공수업 학생들은 의자와 침대, 책걸상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톤즈의 작은 발걸음

희망고는2017년8월 아케치(Akech Tong) 주지사와 함께 정부, 톤즈 주민, 희망고가 함께 협업하여 희망고 빌리지와 망고묘목장을 조금씩 직접 운영하는것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점차영역을 확대하여 톤즈 주민 들의 책임과 포부를 키워 NGO로써 가장이상적 최종목표인 '현지 톤즈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운영'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7년은 유난히 힘든 가뭄과 심각한 기상 이변으로 다른 구호단체의 지원도 중단 되어버려 남수단기근선포가되 었던해입니다. 남수단은 매년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노출 되어있어 희망고는 더욱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코로나와 홍수로 인해 피해가 심한 곳곳을 주민들이 직접 두 손으로 일구어내며
그로 인해 톤즈의 발전이 한 층, 한 층 쌓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희망고 Street

집집마다 심은 망고묘목처럼, 톤즈의 거리 곳곳에도 망고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고는 2013년부터 망고나무거리 조성사업을 정부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톤즈중앙에 프리덤스퀘어광장에서 희망고 빌리지까지 이어지는 도로와 톤즈 시내의 주민들과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거리에 망고나무 거리조성을 시작했습니다.

Chapter 5

청소년을 위한 컴퓨터교실

톤즈의 미래
'희망고 유스센터'

처음 톤즈에 방문했을 때 길거리에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할 일이 없거나 있을 곳이 없어 거리를 배회했던 청소년들이였습니다. 희망고는 남수단 톤즈 시장과 함께 그들을 위해 보다 생산적이고 유익한 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 2015년 9월부터 준비하여 유스센터를 지었습니다. 기초 컴퓨터 클래스,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수업 지원을 약속하며 지역 라디오를 통해 청년들에게 알려 함께 모여 현판식을 하며 희망을 나누었고, 현재 2019년 그 곳은 '전문기관(Institute)'으로 거듭났습니다.

2015년 남수단 톤즈 희망고 빌리지로 발송했던 컨테이너가 2016년 2월에 무사히 당도하였습니다. 그 중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던 '태양열 설치' 작업이 6월에 마무리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남수단 톤즈의 태양열 사업은 희망고 빌리지 내 자가 발전기인 태양열 전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전기 동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흡수된 태양열로 빌리지 내 건물의 다양한 관리와 망고나무 사업 등 다양한 자립 형태를 위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스센터 건물을 짓고있는 사람들

2021년 희망고 빌리지 재건

Chapter 6

청소년 축구팀

망고나무에서는 망고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며, 청년들은 각종 컴퓨터 수업으로

미래의 꿈을 키워가고 톤즈를 대표하는 축구팀으로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Chapter 7

현지 신문기사 감사문

The Juba Telegraph　　Feature Story　　Saturday, 14 February 2015 | 15

Mama Kwang Hee Lee: the Founder of the Himango Organisation which planted 30,000 mango trees in Tonj

BY MARIAL WEN DENG

On February 9, 2015, the Himango founder popularly known as Mama Kwang Hee Lee, from South Korea, had an interview with The Juba Telegraph. Himango runs a mango plantation project in Tonj South, besides providing educational services to children and adults in the area.

In a cool, brilliant environment of Crown Hotel where the organization's coordinator, Mr. Kuc Mayur Kuc and his visiting team of five from South Korea including the founder of the Himango Organization had a dinner at evening hours with some invited guests, MARIAL WEN DENG, our reporter, caught up with Mama Lee.

The founder appeared so jubilant that she kept smiling throughout the interview; a signal that her dream was coming to reality. Without surprise, she is as short as any other Southern Asian, with some difficulty in speaking English, and a heavy Asian accent. Her profile would have been more insightful and catching, if she spoke in her Korean Language.

Here is the full conversation.

Qn. Mama Lee thanks so much for accepting an interview with the Juba Telegraph. Please share the history of your organisation with our readers:

It's my honour to have this interview. I'm so grateful and appreciate that.

Qn. That's great! Would you briefly tell us some profile about your organization, the Himango?

I think Himango background is also my background. I would begin by this, in childhood my father was a reverend and so both father and mum worked for the church after World War II, 1952. They were particularly taking care of the poor, the street kids, the widows, the orphans, and many kinds of poor people in Korea.

When I came here I felt touched. Though other people say it's hard to live in Tonj for me I feel very comfortable. I remembered the way my mother took care of the poor, I felt I should do the same thing my mother used to do. I came up with the Himango project in the way my mum used to. If she were here she would be doing the same.

Kwang Hee Lee

I had no heart of saying you people are poor though I don't know the mind of African people but I believe they have the same thinking like the Korean. Now, since it's not easy to always come to South Sudan, I have to sit down and see how Himango can do a work that is more sustainable or ... ple.

Qn. When did you ... the Himango proje... help the people of T...

First I worked for the ... about two years, pl... trees until 2011 whe... work independently. ... when I founded the ... ganization. But in th... tation there are peri... no work to do. This n... up with an educatio... opened adult, nurser... cal education progra...

Qn. Mama Lee, yo... have worked in man...

in Tonj and not another country?

I don't know but I think God may have guided me, hahaha (laughs). I don't really know why I visited Africa and I don't know why to a deep place like Tonj. So I can't explain more on that. Himango will try to ...

...untary workers, do you easily find people that would be interested to come and work in Africa in general and South Sudan in particular?

Not really, nobody wants to come and work in Africa, at least it would be okay with others to work in Juba here but not as far as to Tonj. People don't understand why I chose to base my NGO in a deep village.

Qn. Are there times you do get some setback that makes you contemplate your decision to continue with all the projects of the NGO?

Not really. I feel always excited in every step I take. Even my husband always complains, he says that I don't care about him but rather Himango. He tells many family members that, 'my wife doesn't think of me but always about the Tonj project' (laughs).

Qn. Do you have challenges as the NGO goes about its project in Tonj?

Not so much, I have very strong advisors. I have the deputy governor Mr. Akec Tong Aleu and Madam Ayen Parek. They are good people who know every situation in the area. In case I feel there's a problem, I normally talk to them and there comes always a solution.

Qn. What would you want to see some day when you will look back and say, I'm grateful for the work I have done?

I want people to be in good circumstance, good education so that they can improve their standard of living, so that they can be creative, independent thinking and working ...

Juba Telegra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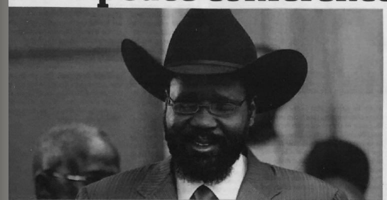
TJT

Promoting Integrity & National Sovereignty

www.theJuba-telegraph.com　jubatelegraph@gmail.com　Chairman of Board of Directors: Rtd. Gen. Bona Baang Dhol　Editor-in-Chief Emmanuel Monychol Akop

Vol.1 Issue 126　Saturday February 14, 2015　4 SSP

President Kiir graces Lakes State peace conference today



...sident Salva Kiir

... Mariak Michael

...sident Salva Kiir Mayardit ...vels to the Lakes State's capital ...mbek this morning to offici... over the long awaited peace conference aimed at ending hostilities and revenge killings that has dominated the state for the past years.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Press Secretary Ateny Wek Ateny, Kiir who is accompanied by several national ministers among other dignitaries will join Rumbek people to find possible means to an internal violence which has taken years.

Turn to p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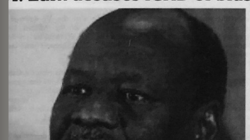
Government defends right to buy arms

P.2

Mama Kwang Hee Lee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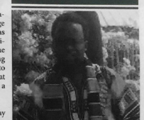
...r. Lam accuses IGAD of bias, inconsistence



By Yach Tach Ayuel

The Leader of 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 for Democratic Change (SPLM-DC) Dr. Lam Akol Ajawin has accused the regional bloc IGAD, mediating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opposition SPLM-IO, of not standing firm while making proposals on how to address the Country's crisis citing that the body keeps shifting its position on a number of proposed agreements.

Dr. Lam made the remarks yesterday ...



2015년 2월 14일자 주바 텔레그래프

희망의 망고나무 이광희대표 인터뷰 기사 발췌

TONJ STATE TONJ

Republic of South Sudan

Tonj State—Tonj

Governor's Office

REPUBLIC OF SOUTH SUDAN · JUSTICE · LIBERTY · PROSPERITY

Ref: RSS/TS/COM/GO/50-A-1

Date: Feb 15th 2019

To: **President of Himango Organization**
Republic of Korea

Subject: **<u>Application to Himango Organization for service Rendered to Communities</u>**

I am privileged and honored to take this golden opportunity on behalf of the communities and Government of Tonj State to extend our sincere appreciation to Himango Organization, management team and its supporters/ partners for the standard service they have been delivering in the last ten (10) years to the communities of Tonj in the Republic of South Sudan which includes: the following projects:

a. Planted more than (40,000) fourty thousand mango trees within ten (10) years and other varity such as Guava and Pawpaw
b. Running Himango international Nursery and primary school
c. Vocational training which includes: Masonry, Tailoring, handcraft, Carpentry, adult education and computer training.

Therefore, I urge all the supporters, friends and World wishers to continue supporting Himango projects for the benefits of our communities and the Republic of South Sudan at large.

Finally, the Communities and the Government of Tonj State shall remain committed and support Himango organization wherever necessary

Best Reg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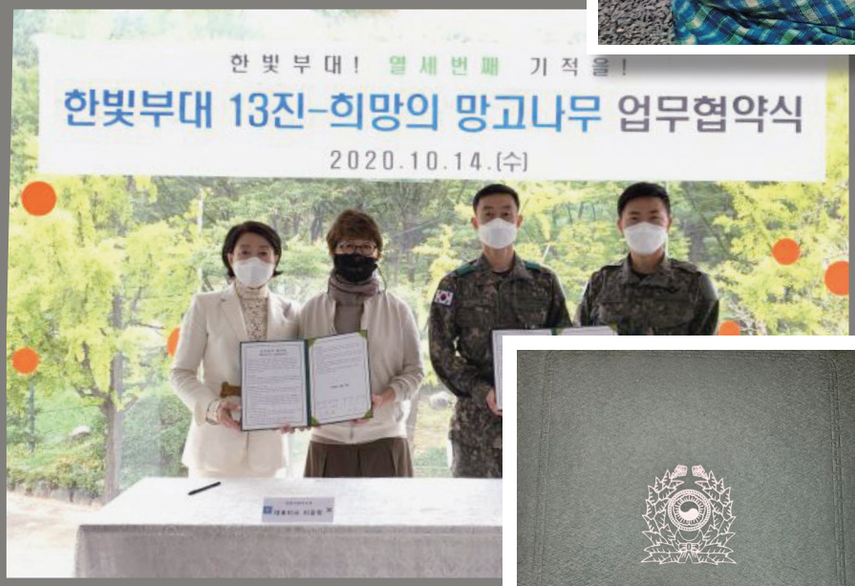
15/Feb/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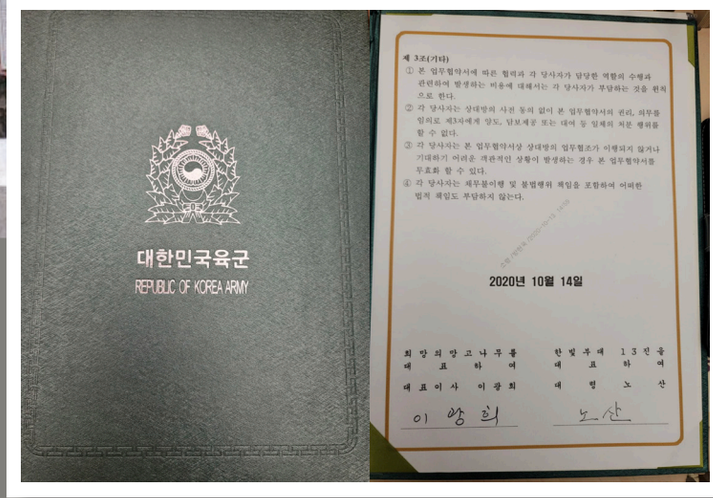
Maj. Gen. Akec Tong Aleu
Governor
Tonj State

The Grestest is LOVE

I want to start this morning by giving my deepest appreciation to Mama Lee during the past 5 years living here in Tonj we have watched so many people come to help people, but give up because it is too hard. We have seen so many people give up. But Mama Lee has never given up!! For more than 10 years now she has kept loving the people of Tonj in South Sudan, she has kept blessing the people through Himango organization, and despite all of the challenges and setbacks that Tonj bring- she has never given up. Thank you Mama Lee for never giving up!

SOUTH SUDAN NGO Indeed and Truth
President *Dr Shab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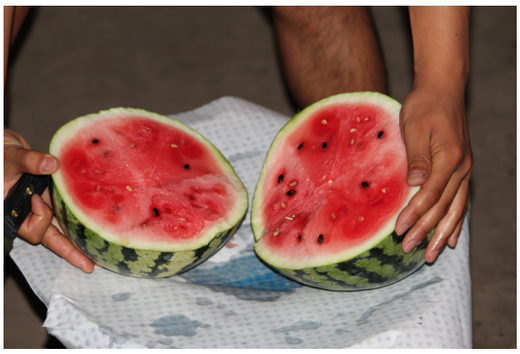


Chapter 8

농업

2013년부터 꾸준히 씨앗을 심어 열매 맺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농사를 지어 끊임없이 열매를 수확하여 자립하는 것을이 희망고의 또 하나의 바램입니다.

2021년에는 톤즈에 트랙터와 농기구, 호미와 각종 씨앗들이 무사히 도착하여
그들의 손으로 직접 희망의 땅을 경작하는 내일이 오길 기대합니다.



남수단 톤즈는 극심한 가뭄 또는 홍수로 인해 농작물 수확이 쉽지 않는 곳 입니다. 하지만 희망고는 2013년부터 꾸준히 씨앗들을 심는 시도를 하였고, 2020년 수박, 무, 각종 콩 종류, 옥수수 와 호미 등의 농기구를 보내면서 농업프로젝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호박, 콩, 오이, 옥수수 등 조금씩 수확의 기쁨을 보며 앞으로의 풍성한 농업의 결실이 톤즈의 다음세대를 위한 자립과 희망의 땅에서 사는 삶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톤즈의 기적을 이뤄줄 꿈의 트랙터가 톤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Chapter 5

한센마을

쉽게 찾아 도움을 줄 수 없는 곳, 그 곳 한센인마을 관자Kuna-ja를 방문하다.

희망고는 톤즈의 소외된 곳을 찾아갔습니다. 100여 가구의 한센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모여 사는 관자마을. 놀랍게도 그 곳엔 마을주민의 50%가 어린아이들이였습니다. 당장에 간단한 치료를 받은 약도, 식량도 없었던 곳에 희망고는 급한 마음에 주식량인 메이지가루(옥수수)를 지원하고, 한센인마을 공터에는 마을 주민들의 손길로 텃밭도 완성하였습니다.

한센병 중에서도 더 많이 아프신 분이였습니다. 쉽게 식량도 받지 못하고 소외됐던 저 분은 그 집에 방문하여 메이지가루도 드리고 지속적인 도움을 드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한센인교회 건축예배에 한센인 주민들이 온 마음을 다해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록 우리가 각기 삶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기쁨을 감사를 표하는 마음은 하나일 수 있음을 그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건물의 형태만 자리잡은 곳이지만 한센인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정성스레 감사 예배도 드리고 서로의 사랑과 수고를 기쁘게 축하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메이지가루를 배급하며 구석구석을 찾아갔던 관작마을에는 복합교육문화센터를 건축이 한창입니다. 2015년부터 한센인 마을에 교회를 짓기로 결심, 그 이후 4년간의 끊임 없는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며 포기할 뻔 했던 건축을 마침내 톤즈의 주민들이 희망고 후원자들의 사랑에 힘입어 직접 벽돌을 얹게 되었습니다. 작은 도움 하나에, 작은 씨앗 하나에 온 사랑과 정성을 쏟아준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올라 10년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히 맺어졌습니다. 마음을 나누니, 희망 친구가 더해졌습니다!

2019년 11월, 톤즈 한센인 마을에 1년 넘게 지은 교회가 완공되어 톤즈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손꼽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광희 대표가 방문한 그 뒤로도 그들은 꾸준히 자신들이 직접 지은 건물을 소중히 페인트칠까지 하며 깨끗하고 안전하며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튼튼한 건물로 드디어 완성시켰습니다. 이 건물은 평일엔 아이들의 학교가 되고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진료센터도 되고, 일요일은 예배도 볼 수 있는 복합교육문화센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톤즈에 맑게
울려퍼지는 '종소리'

톤즈에는 시계가 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시계대신 자연 속에 시간의 흐름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센인 마을 복합교육문화센터에 세워진 Bell Tower의 '종소리'로 주민들은 같은 시간 속에 같은 일을 함께 하며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톤즈에 울려퍼지는 맑고 고운 종소리가 그들의 귀에 희망의 소리로, 기쁨의 소리로 울려퍼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Zinc
Total Iron
BATCH NO:
MFG. DATE:
BEST BEFORE:

희망고 13주년

HIMANGO 13th Anniversary Annual Book

발행인 이광희

발행처 희망의 망고나무

발행일 2021년 11월 25일

기획 이광희

디자인 콩트라플로우

황신화 백진우 김보름

HIMANGO **예금주** 사단법인 희망의 망고나무 | **계좌** 신한은행 100-025-962067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길 310-4 | himango.org | 02-792-6852 | hlog_h05917@naver.com

Copyright © HIMANGO. All rights reserved.